

부록

모의고사 지문 분석



2022학년도 시즌4 제2차 예비평가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1~4] 현대시

(가) 「선우사-함주시초 4」 백석

작품 평가

‘선우사’에서 ‘선(膳)’은 반찬이라는 의미도 있고, 선물로 준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제목에는 쌀밥에 곁들여진 소박한 생선 구이 하나를 친구 삼아 쓴 글이라는 뜻도 있고, 고달롭게 살았던 친구들, 즉 동포들에게 시인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도 담겨 있다.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건 부제와 결부해 보면 이 작품에 담긴 주제 의식은 보다 선명해진다. 부제인 ‘함주시초’는 함경남도 함주 지역에서 쓴 시를 뽑아 적었다는 뜻이다. 일제의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 의식을 찾아내려는 작은 수고를 곁들이면 더 좋은 감상이 될 수 있겠다.

제 1연

낮은 나조반(=장방형의 조그마한 밥상)에 흰밥도 가재미(=가재미)도 나
도 나와 앉아서[→밥과 가재미를 의인화]

쓸쓸한 저녁을 맞는다

▶ ‘흰밥’도 ‘가재미’도 ‘나’도라는 표현을 통해 밥상 앞에 여럿이 웅기종기 모여 앉은 듯한 느낌을 주지만, 화자는 차린 것이 많지 않은 단출한 낮은 밥상 앞에 혼자 앉아 있는 듯하다. 그래서 ‘쓸쓸한’ 저녁이라고 한 것일 거다.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관련해 이 쓸쓸함은 식민지 시대 조선인들의 심리 상태와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제 2연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우리들은[→동류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다

우리들은 서로 미덥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

▶ 쓸쓸한 저녁이지만 흰밥, 가재미, ‘나’는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친한 사이이다. 그래서 서로 미덥고 정답고 좋다. 제연의 ‘쓸쓸한 저녁’과는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제 3연

우리들[→흰밥과 가재미와 ‘나’]은 맑은 물밑 헤정한[→맑고 깨끗한] 모래
톱에서 하루 긴 날을 모래알만 헤이며(=세며) 잔뼈가 굵은 탓이다

바람 좋은 한벌판에서 물닭(=호수나 강가의 갈대 속에 사는 뜸부기와 새)
이 소리를 들으며 단이슬 먹고 나이 들은 탓이다

외따른 산골에서 소리개(=술개) 소리 배우며 다람쥐 동무하고 자라
난 탓이다

▶ 우리들은 모두 맑고 깨끗한 곳에서 욕심 없이 자라났으며 그렇기 때문에 서로 미덥고 정답고 좋은 것이다.

제 4연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 희여졌다[→세속적 욕심을 초월한 긍정적인 미의 색이다.]

착하다착해서 세관은(=성질이나 기세가 역센) 가시 하나[→남을 찌를 수 있는 폭력적인 면모] 손아귀 하나[→무엇인가를 움켜쥔 수 있는 물질적인 욕망] 없다

너무나 정갈해서 이렇게 파리했다(=몸이 마르고 낯빛이나 살색이 핏기가 전혀 없다.)

▶ 정갈해서 파리한 우리들[→모두 맑고 깨끗한 곳에서 자랐다.]은 연약하고 가난한 존재이지만, 부정적인 세상에 동화되지 않은 순수한 존재들이기도 하다. ‘파리하다’는 대개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이곤 하는 표현인데, ‘정갈하다’라는 긍정적인 시어와 묶이면서 역설적인 시적 발상으로, 화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다.

제 5연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 없다

그리고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다

▶ 함께 있는 우리들이 느끼는 심리적 만족감이다. 함께 있음으로 인해 가난과 외로움, 타인에 대한 부러움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제 6연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세상 같은 건 밖에 나도 좋을 것 같다

▶ ‘세상 같은 건’이라는 표현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엿볼 수 있다. 화자는 ‘세상’을 ‘우리들’과는 이질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고, 세상과 거리를 두려는 자세를 보여 준다. 작품의 창작 배경과 결부시켜 보면 이 ‘세상’은 일제 강점하의 현실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겠다.

▶ 시 전체에서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욕심이 없고 착하고 정갈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셋은 친구 같이 친밀한 존재로, 세상과 떨어져 쓸쓸하지만 고결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제목은 [반찬] 친구에게 주는 글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시인의 주관적 인식과 시인이 추구하는 바를 사물에 투사하여 표현하고 있는 시라고 하겠다.

+참고 자료

● 이해와 감상

백석 시인은 전국 각지를 기행한 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편의 기행시를 남겼는데, 그 시들은 단순히 경관에 대한 느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일제 강점하에 신음하는 동포들의 삶을 그 장소와 결부하여 표현한 작품들이었다. 기행시의 형태를 빌려 비참하게 사는 동포들의 삶을 기록하고, 또 그러한 동포들을 향한 연민과 유대의 감정을 표현했던 것이다. 이 작품도 그중 하나로서, 반찬들에게 말을 거는 다소 동화적인 장면의 이면에는 일제의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 의식이 담겨 있다.

[5~9] 예술

클레의 절단 콜라주

지문 평가

클레의 '절단 콜라주' 기법에 대해 비평적으로 분석하는 예술 지문이다. 철저하게 키워드 중심의 글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각각의 개념에 대응하는 키워드들을 정리하고, 이들을 적절히 구분하거나 묶어 주는 독해가 요구된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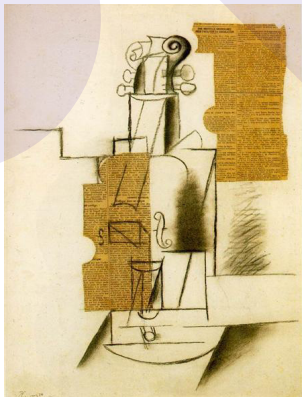
예술 - 서양 미술 - 콜라주

입체주의 콜라주, 클레, 절단 콜라주, 수정된 동질성, 「함마메트의 모스크」, 보링거, 감정 이입 충동, 추상 충동

문단 1 입체주의 콜라주와 절단 콜라주

- 1) **입체주의 콜라주**는 캔버스에 종이나 천, 나뭇조각 등의 재료를 붙이는 회화 기법으로, 이는 평면에 3차원 환영으로 대상을 재현하는 전통적 회화에 대한 반발로 시도되었다.

▶ '입체주의 콜라주'라는 회화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다. 다양한 재료들이 캔버스에 붙어 있는, 다음과 같은 작품을 떠올려 보자.



피카소, 「바이올린」

▶ 미술에서 재현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대상을 원본과 닮게 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입체주의 콜라주는 이에 대한 반발로서, 전통적 회화와 차별화되는 낯선 방식을 추구하였다.

- 2) **클레**는 이러한 선례[→ 캔버스에 재료를 붙이는 입체주의 콜라주 기법]를 따르되 자신의 회화 작품을 잘라 붙였다. 기존 콜라주가 캔버스와는 다른 이질적인 재료로 인해 회화 공간 너머의 현실을 끊임없이 환기하는 효과를 낳았던 데 반해, 클레의 **절단 콜라주**는 그림을 잘라 붙인다는 점에서 [캔버스와 재료가] 동질성을 지녔다.

▶ 미술가 '클레'는 '절단 콜라주'라는 기법을 추구했다. 이는 재료를 잘라 붙인다는 점에서 입체주의 콜라주와 유사하지만, 이질적인 재료가 아니라 자신의 회화 작품을 잘라 붙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 이때 본래의 캔버스와 그 위에 잘라 붙인 조각은 둘 다 그림을 이룬다는 점에서 이질성이 아닌 동질성을 지닌다.

- 3) 다만 절단 후 재구성되는 만큼 **「수정된 동질성」**이라 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사실성의 파괴로 얻은 일종의 추상화였다.

▶ 절단 콜라주에서 잘라 붙인 조각은 원래의 모습에서 왜곡된다. 따라서 이는 재현을 추구하는 평범한 동질성이 아닌 수정된 동질성에 해당한다. '절단 후 재구성', '수정된 동질성', '사실성의 파괴', '추상화' 등을 '클레 = 절단 콜라주'의 키워드로 묶어 주자.

▶ 여기까지 제시된 입체주의 콜라주와 절단 콜라주의 대조 지점도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자.

입체주의 콜라주	절단 콜라주
이질적인 재료 잘라 붙임 캔버스와 다른 이질적 재료 회화 공간 너머의 현실 환기	자신의 회화 작품 잘라 붙임 캔버스와 동질성을 지니는 재료 수정된 동질성, 사실성의 파괴

문단 2 재현의 파괴

- 1) 예술은 보이는 것의 모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라는 클레의 발언에서 엿볼 수 있듯이, 그의 예술적 관심은 재현이 아니라 추상에 기울어 있었다. 그는 가시적인 대상은 세계의 단편적인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며 감정이나 정신 등 비가시적인 것을 다루는 추상에 더 큰 진리가 있다고 보았다.

▶ 재현과 추상이라는 개념을 구분하자. 이 가운데 클레가 관심을 보이며 중시한 것은 추상이다. 이처럼 재현에 반발했다는 점은 입체주의 콜라주의 공통점이기도 하다[문단1~)].

재현	추상
보이는 것의 모방 가시적인 대상 세계의 단편적인 사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 감정이나 정신 등 비가시적인 것 더 큰 진리[→ 단편적이지 않은, 총체적인 것]

- 2) 그래서 절단 콜라주는 재현의 파괴에서 출발한다. 그의 첫 절단 콜라주인 **「함마메트의 모스크」**는 풍경의 재현을 위해 원근법을 두드러지게 사용한 자신의 그림에서 전경 부분인 하단을 띠 형태로 잘라 내고 상하를 바꾼 후 그림의 상단에 붙인 것이다. 그로 인해 멀리 후퇴하는 느낌을 주는 후경이 가로막혀 원근법의 공간적 연속성이 무너져 버렸다.

▶ 실제 작품을 먼저 보자.



클레, 「함마메트의 모스크」

▶ 절단 콜라주는 재현을 위해 그린 작품을 재료로 사용하되, 절단과 재구성을 통해 재현의 맥락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공들여 이룬 재현을 스스로 파괴하는 효과가 생겨나는 거다.

원래의 작품 A		절단 콜라주 작품 B
재현 원근법 사용 공간적 연속성 O	⇒ 절단 후 재구성	추상 원근법 파괴 공간적 연속성 X

[참고] 원근법은 문단1-1)에서 진술한 '2차원' 평면에 3차원 환영으로 대상을 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법이다. 이와 달리 현대 회화는 실제로 담을 수 없는 3차원을 모방하는 대신 회화만이 갖는 평면성을 표현하는 특징을 지닌다.

문단 3 추상 충동의 해소

- 1) 클레는 추상의 동기가 외부 세계와 연결되지 못하는 고립에서 비롯되며, 추상의 양식은 파편화된 세계를 집적하는 창조에 있다고 보았다.

➡ 추상의 동기와 양식이다. 즉 예술가는 고립감 때문에 추상을 추구하며, 파편화된 세계를 다시 집적함으로써 추상을 창조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함마메트의 모스크' 같은 절단 콜라주다.

- 2) 이러한 생각은 **보링거**의 이론과 맞닿아 있다.

① **맥락 찾기** 클레의 관점을 또 다른 관점 요소인 '보링거'의 이론과 연결하고 있다. 두 관점을 구분하되 연결해서 이해해 주자.

- 3) 보링거에 따르면 근원적 욕구인 예술 의욕 중 자연의 유기적인 아름다움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것으로서 재현을 통해 충족되는 '감정 이입 충동'과 달리, '추상 충동'은 외부 세계와 관계 맺지 못함에 따라 야기된 심리적 불안과 내적 고립의 산물이다. 예술가는 추상적 표현을 통해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 한다. 보링거는 재현에서 벗어나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정신을 드러냄에 따라 추상 충동이 해소된다고 보았는데, ……

➡ 보링거는 예술가의 예술 의욕을 '감정 이입 충동'과 '추상 충동'으로 구분한다. 둘의 대조 지점을 정리해 보자.

감정 이입 충동	추상 충동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만족 재현을 통해 충족	심리적 불안과 내적 고립의 산물 추상적 표현을 통해 해소

➡ 따라서 클레는 절단 콜라주라는 추상적 표현을 통해 심리적 불안과 내적 고립을 해소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1)에서 설명한 클레의 관점과 보링거의 이론이 맞닿는 부분이다.

- 4) …… 이러한 관점에서 [클레의] 절단 콜라주는 재현을 파괴하고 세계에 가시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있음직한 세계를 파괴된 조각으로 재구성하여 그 정신을 드러냄에 따라 창조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보링거의 관점에서 본 절단 콜라주에 대한 해석이다. 즉 클레의 절단 콜라주가 창조하는 세계는 가시적인 세계→'있는 세계'도 아니고 완전한 허구의 세계도 아닌, '있음직한 세계'다. '재현의 파괴', '세계의 재구성', '새로운 창조' 등의 키워드를 함께 강조하고 넘어가자.

문단 4 의도적 통제를 통한 의미 부여

- 1) 절단 콜라주의 특징은 추상적 경향 외에 절단의 흔적, 빈틈 등이 시각적 요소로 사용된다는 데에 있다. 재료의 너털너털한 재질이 중앙에 노출되도록 하여 물질적인 인상을 주며, 간격을 두고 붙일 때 화면을 가로지르는 빈 공간은 전통적 회화 양식의 고루함에 대한

비판이면서 작품마다 각기 다른 효과를 낳는다.

➡ 절단 콜라주의 재료가 주는 효과들이다. 각각의 키워드들이 주는 느낌만 확실히 챙기고 넘어가자.

- 2) 클레는 작품을 단편들로 절단하여 배치할 때 창조성이나 의도적인 고안을 포기하지 않았다. 혼란과 절단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지만, 캔버스를 우연 속에 방치하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 통제하고자 한 것이다.

➡ '혼란과 절단'이라고 하면 우연적인 효과를 이용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클레는 '창조성'과 '의도적인 고안'을 통해 작품을 '통제'하려 했다. 바꿔 말해 절단 콜라주의 혼란은 무질서한 것이 아닌, 계획된 혼란이라 할 수 있겠다.

- 3) 단편들이 통제에 의해 재구성되는 단계는 절단이라는 창작 요소가 더 부각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를 통해 본래의 그림이 지니던 의미에 변화가 나타나고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 클레의 작품에서 통제가 가지는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즉 그림을 파괴하는 것만으로 창작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통제에 의한 재구성 속에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거다.

- 4) 예컨대 건축물의 상단이 잘려 나가면 기하학적 모양만 남아 의미가 바뀌고, 상단의 것이 하단으로 옮겨지면 천상의 영역이 지상의 영역으로 바뀌기도 하며 그로 인해 무언가 땅에 추락하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 클레의 작품에 나타나는 통제의 예시다. 절단과 배치를 통해 기존의 작품에는 없던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문단 5 절단 콜라주의 의의

- 1) 파괴와 재구성으로 이루어진 절단 콜라주의 존재 양식은 '순간적'인 것이다. 절단 콜라주는 어떠한 작품이든 새롭게 수정될 수 있을을 뜻하기 때문이다. 작품의 존재 양식이 영원한 것이 아니게 될 때 절단 콜라주는 재료로 사용된 기존 창작 활동을 성찰하는 행위가 된다.

➡ 작품이 언제든 수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그 자체로 성찰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다면 절단 콜라주의 존재 양식에서 하나의 작품은 영원히 완성된 상태가 아닌 셈이다.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작품을 다시 파괴해 새로운 절단 콜라주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① **주목** 이때 헛갈리지 말자. 절단 콜라주는 새로 만들어지는 작품에 대한 성찰이 아니라, 재료로 사용된 기존의 작품에 대한 성찰이다. 물론 새로 만들어진 작품 역시 언젠가는 다른 작품의 재료가 되면서 성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2) 클레는 입체주의 콜라주의 이질적인 가능성 대신, '수정된 동질성'을 통해 예술가의 의도를 강조하여 예술의 부정으로 귀결되지 않았다. 클레가 작품의 존재 양식을 순간적인 것으로 변화시킨 것은 전통적 회화에 대한 비판이면서 작품의 파괴 자체를 예술적 창작 요소로 만든 것이다.

➡ 지문 전체의 요약에 가까운 내용이다. '수정된 동질성', '예술가의 의도', '순간적인 존재 양식', '전통적 회화 비판', '파괴 자체가 창작 요소' 등의 키워드를 되짚으며 마무리하자.

반덤핑 관세와 제로잉

지문 평가

'반덤핑 관세'와 덤핑 마진의 산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로잉' 관행에 대해 설명한다. (나)의 문단2, 3을 제외하면 지문 자체는 무난하지만, 수입국과 수출국 사이에서 반덤핑 관세와 제로잉이 각각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분명 고전했을 거다.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사회 - 경제학 - 반덤핑 관세

관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최혜국 대우 원칙, 내국민 대우 원칙, 비관세 장벽, 기술 장벽, 반덤핑 관세,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패널, 상소 기구, 덤핑, 덤핑 마진, 마이너스 마진, 제로잉, 패턴 거래

(가)문단 1 자유 무역과 관세

- 1) 자유 무역은 비교 우위의 원리에 따라 보다 낮은 가격에 재화를 공급하게 한다는 점에서 각국의 경제 후생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힘든 문제를 낳기도 한다.

➡ **맥락 짚기** 일단 화제부터 파악하자. '자유 무역'의 장점과 단점이 기술되어 있다.

➡ 소비자 입장에서야 싼 수입품을 통해 동일한 크기의 효용을 주는 제품을 더 싸게 이용할 수 있겠지만(→ 경제 후생을 높일 수 있겠지만),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 입장에서선 그만큼 매출이 줄어들 테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 2) 그래서 각국은 국경을 통과하는 재화에 부과하는 조세인 **관세**를 수입품에 매겨 수입품의 가격을 높인다.

➡ 결국 '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을 억제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가)문단 2 GATT의 도입

- 1) 그런데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득세하여 무역 분쟁이 늘자, 주요 국가들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맺어 관세를 인하하고 자유 무역의 증진을 도모하였다.

➡ 먹고살기 힘들어질수록 우리 식구부터 먼저 챙기게 되기 마련이다. 특히 대공황 같은 경제 위기에는 더 그렇다. 이런 흐름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GATT 협정이다.

- 2) GATT는 국가 간 차별 대우가 분쟁을 야기한다고 보고, 한 국가가 어떤 상대국에 부여한 최고의 대우를 모든 회원국에 부여하는 **최혜국 대우 원칙**과, ……

➡ 누군가에게만 별도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 3) …… 자국 상품과 수입품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 대우 원칙**을 기조로 세웠다.

➡ 수입품에 과도한 관세를 매기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금지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내국민 대우 원칙'으로 무역 상대국을 우대하고, '최혜국 대우 원칙'으로 모든 국가가 동등한 조건에서 거래한다면 무역 분쟁은 줄어들 것이다.

- 4) 전자는 무역의 흐름이 왜곡되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자국의 편향된 제도에 의해 다른 회원국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다. 특정 국가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거나, '편향된 제도'로 다른 국가들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자유 무역이 결코 실현될 수 없다.

(가)문단 3 비관세 장벽

- 1) 1970년대에 석유 파동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자 서방 국가에서 다시 보호 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되었다.

➡ 문단2-1)의 '1930년대 대공황'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먹고살기가 힘들어졌으니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을 거다.

➡ 그런데 어떻게 자국 산업을 보호했을까? GATT 협정 때문에 관세를 다시 올리는 것도 불가능할 텐데……

- 2) GATT 회원국들은 국가 간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일반적인 관세율을 통제받으므로, 기술 장벽, 반덤핑 관세 등의 **비관세 장벽**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였다.

➡ 그래서 대신 '비관세 장벽'을 써먹었다. '비관세 장벽'이 뭐냐면……

➡ **맥락 짚기** 일반적인 관세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 당연히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 3) **기술 장벽**은 수입품의 기술적 특성 및 생산 방법과 관련된 수입 요건을 강화하는 방법이며, ……

➡ 예를 들어 환경 보호를 핑계로, 굉장히 까다로운 방식으로 원료를 가공할 것을 상대국에 요구할 수 있겠다.

- 4) …… **반덤핑 관세**는 수출 가격이 수출국에서의 정상 가격보다 낮을 때에 해당 수입품에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 A국이 B국으로부터 X를 수입하는 상황에서 B국에서는 X를 10,000원에 판매하는데, A국으로의 수출 가격은 5,000원으로 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A국은 이런 반응을 보일 거다. "아니 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싸게 팔아? X와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은 어떡하라고? 관세를 좀 더 매겨야겠다."

- 5) 기존 관세율의 변경은 대외적인 재협상이나 입법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한 반면, 비관세 장벽은 각국 정부의 행정 조치만으로 시행될 수 있다.

➡ '비관세 장벽'은 GATT 협정과 별개로 비교적 자유롭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GATT 협정으로는 막는 데에 한계가 있다. 새로운 해결책의 필요성을 내포하는 문장이다.

(가)문단 4 WTO의 도입

- 1) 이후 비관세 장벽이 남발되어 무역 분쟁이 끊이지 않자 1995년에 GATT의 취지를 이어받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였다. WTO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덤핑의 판정 기준을 담은 **반덤핑 협정**을 도출하였고, ……

➡ **맥락 짚기** 문단3-4)의 '반덤핑 관세'와 관련된 진술일 거다. 다만 아직 '덤핑'의 정의는 제시되지 않았으니, 일단 넘어가자.

- 2) …… 무역 피해국이 제소하였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인 **패널**, 패널의 판정에 항소가 제기되었을 때 재심을 위해 열리는 **상소 기구** 등을 설치하였다. 패소국은 판결을 이행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승소국이 직접 보상을 요구하거나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이대로만 잘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3) 다만 당사국 간의 정치적 관계 때문에 보상이나 보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패소국이 판결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승소국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4) 또한 2008년 금융 위기는 각국의 정치인들로 하여금 자국의 단기적 이익에 더 집착하게 하였고 보다 강한 보호 무역주의를 추구하도록 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 문단2-1)의 '1930년대 대공황', 그리고 문단3-1)의 '석유 파동'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겠다.

(L)문단 1 덤핑과 반덤핑 관세

1) **덤핑**이란 수출 가격이 동종 상품에 대한 수출국에서의 정상 가격보다 낮은 것을 말한다.

▶ (가)의 문단3-4)를 떠올려야겠다. 결국 '반덤핑 관세'는 덤핑에 대해 이루어지는 비관세 장벽 조치인 셈이다.

2) 덤핑은 수입국의 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이므로, WTO는 **반덤핑 협정**을 통해 덤핑으로 수입국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이번에는 (가)의 문단4-1)을 떠올려야겠다. 덤핑의 판정 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출국이 덤핑을 통해 수입국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 **주목** 주의하자. (가)에서는 '반덤핑 관세'를 통해 수입국이 수출국에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반덤핑 관세 자체는 '덤핑'이라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이다.

3) 수입국은 실태 조사를 토대로 덤핑 판정을 거쳐 관세에 더해 추가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수입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덤핑 판정을 부당하게 하는 경우도 많아서 수출국이 WTO에 제소하는 일이 늘고 있다.

▶ 다만 현실적으로는 수입국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악의적으로 덤핑 판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수출국이 반덤핑 관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게 된단다.

(L)문단 2 덤핑 마진과 제로잉

1) 정상 가격에서 수출 가격을 뺀 값을 **덤핑 마진**이라 하며, 반덤핑 관세는 덤핑 마진 이하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덤핑 협정에 따르면, 덤핑 마진은 조사 대상 기간의 모든 거래에 대해 정상 가격의 평균값에서 수출 가격의 평균값을 빼서 산출할 수 있다.

▶ '덤핑 마진'을 산출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정리해 두자.

덤핑 마진 = 정상 가격의 평균값 - 수출 가격의 평균값

2) 아울러 상품의 세부 모델별 또는 판매 시기별로 덤핑 마진을 각각 산출한 후에 이들을 평균한 값을 해당 상품의 덤핑 마진으로 삼는 것도 가능하다.

▶ '덤핑 마진'을 산출하는 두 번째 방법이다. 예를 들어 다음의 표처럼 분기별로 덤핑 마진을 먼저 산출한다면 최종 덤핑 마진은 '50+0+50+(-40)'을 평균한 값인 15가 된다.

	정상 가격의 평균값	수출 가격의 평균값	덤핑 마진
1분기	100	50	50
2분기	180	180	0
3분기	200	150	50
4분기	150	190	-40

3) 그런데 특정 모델이나 특정 판매 시기에서 정상 가격보다 수출 가격이 더 높아서 **마이너스 마진**이 발생한 경우 몇몇 수입국은 해당 마이너스 마진을 '0'으로 처리한 후 덤핑 마진들의 평균을 내는 **'제로잉'** 관행을 따랐다. 제로잉을 허용하면 덤핑 마진이 높아진다.

▶ 무슨 말인지 직접 살펴보자. 2)의 예시에서 '제로잉'에 의해 4분기의 덤핑 마진은 '0'이 되며, 따라서 최종 덤핑 마진 역시 '50+0+50+0'을 평균한 값인 25가 된다. 제로잉에 의해 반덤핑 관세가 더 높아지는 셈이다.

	정상 가격의 평균값	수출 가격의 평균값	덤핑 마진
1분기	100	50	50
2분기	180	180	0
3분기	200	150	50
4분기	150	190	-40 → 0

(L)문단 3 제로잉에 대한 다양한 견해

1) 제로잉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국가들은 덤핑이 일부 기간이나 모델에만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며, 제로잉을 하지 않으면 엄연히 존재하는 덤핑을 은폐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 **맥락 짚기** 이전까지는 개념을 중심으로 글이 전개되었다면, 해당 문단에서는 관점을 중심으로 글이 전개되고 있다.

▶ 먼저 '제로잉을 긍정하는 관점'이다. 제로잉을 하지 않으면 문단2-3)의 예시에서 1, 3분기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덤핑이 상대적으로 가려진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4분기의 마이너스 마진을 0으로 취급하여, 1, 3분기의 덤핑을 제대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2) 이와 달리 제로잉을 비판하는 국가들은 수요나 생산 여건 변화 등의 시장 변동을 고려하여 모델별, 시기별로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것은 정상적 행위이므로, 제로잉은 덤핑 마진을 높이려는 부당한 기법이라고 주장한다.

▶ '제로잉을 부정하는 관점'이다. 문단2-2)의 예시에서 4분기에서와 같이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마진이 발생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L)문단 4 제로잉 관행의 실태

1) 2010년을 전후로 제로잉 관련 소송에서 WTO의 상소 기구가 제로잉 시행 국가에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WTO에서는 문단3-2)와 같이 '제로잉'을 부정적으로 보았단다.

2) ……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제로잉이나 제로잉과 유사한 효과를 낳는 기법을 쓰고 있다. 특히 미국은 특정 판매 시기, 또는 특정 지역, 특정 구매층에서 수출 가격이 현저히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패턴 거래'**가 있는 경우에, 정상 가격의 평균값을 해당 수출 가격과만 비교하여 그에 대해서만 '표적 덤핑'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반덤핑 협정의 세부 조항에 의거하여 표적 덤핑 판정에 치중하고 있다. 이 방법을 쓰면 패턴 거래로 규정된 수

출들에 대해서만 별도로 덤핑 마진을 산출하므로, 패턴 거래가 아닌 것들을 제로잉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덤핑 마진을 산출하지 않기 때문에 덤핑 마진을 0으로 산출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편법을 동원하여 제로잉과 유사한 효과를 낳는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 특히 '표적 덤핑 판정'은 제로잉을 하지 않으면서도 제로잉을 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기법이다. 판매 시기, 지역, 구매자층 측면에서 덤핑이 부분적으로만 발생하더라도 이를 패턴 거래로 규정하여 표적 덤핑 판정을 내리면, 덤핑이 아닌 거래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제로잉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3) 이와 같이 제로잉 문제는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큰 사안이므로 WTO 체제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중의 하나이다.

➡ 수출국이 수입국에 '덤핑'을 하면 수입국에서 수출국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그런데 덤핑 마진 산출 과정에서 수입국이 '제로잉'을 택했다면 수출국은 이를 문제 삼아 다시 WTO에 제소할 수도 있고…… 참 골치가 아프겠다.



[21~26] 과학

DNA 바코드 기술의 원리

지문 평가

어렵지만 원리에 충실한, 전형적인 과학 지문이다. DNA 바코드 기술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수행되는 PCR 과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의식해 가면서 읽었다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을 거다.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과학 - 생명 과학 - DNA 시퀀싱 기법

동정, DNA 바코드, 바코드 라이브러리, CO1 유전자, 중합 효소 연쇄 반응(PCR), 프라이머, 디옥시뉴클레오사이드 삼인산(dNTP), DNA 중합 효소, 시퀀싱, 다이드 옥시뉴클레오사이드 삼인산(ddNTP)

문단 1 DNA 바코드 표현법

1) 생체 조직이나 혈액, 털 등으로 이루어진 미량의 표본만으로 그것의 분류학상 계통을 밝히는 일인 표본 **동정(同定)**에는 **DNA 바코드** 기술이 사용된다.

➡ 한 개체를 이루는 아주 작은 부분만을 이용해도 그 계통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DNA 바코드 기술' 이란다.

🔍 **맥락 짚기** 앞으로 해당 기술의 원리와, 그 구체적인 과정이 전개될 거다.

2) 보통의 바코드가 검은 줄과 흰 여백의 2진법 코드로 그것이 표기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담는다면, ……

➡ 아무래도 그 이름처럼 바코드의 원리와 비슷한가 보다. 일단 느낌만 대강 파악하자.

3) …… DNA 바코드는 아데닌(A), 티민(T), 구아닌(G), 시토신(C) 등 네 종류의 염기들을 이어 놓은 서열 형태로 고유한 **유전 정보**를 담은 DNA의 4진법 코드를 그대로 활용한다.

➡ '보통의 바코드'가 검은 줄과 흰 여백으로 2진법을 사용하여 정보를 표현한다면, 'DNA 바코드'는 A, T, G, C로 4진법을 사용하여 정보를 표현한다.

문단 2 DNA 바코드 기술의 동정 방법

1) DNA 바코드 기술은 표본을 이루는 세포에서 DNA를 추출하여 특정 부위의 염기 서열을 확인한 후, **바코드 라이브러리**에 저장해 둔 대표 표본의 염기 서열 정보들과 비교하여 일치도가 높은 계통을 찾아 해당 계통에 속함을 보이는 과정을 따른다.

🔍 **맥락 짚기** DNA 바코드 기술이 표본 동정 과정에 적용되는 대략의 흐름을 파악해 두자.

➡ 표본으로부터 추출된 '염기 서열 정보'를 바코드 라이브러리의 대표 표본의 '염기 서열 정보'와 비교하여 둘이 같은 계통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해당 기술의 대략적인 진행 과정이다.

2) 동물계의 동정에는 보통 세포핵의 DNA가 아니라 세포 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의 **CO1 유전자**를 기준으로 삼는다.

➡ 갑자기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어떤 유전자 얘기가 나온다. 굳이 세포핵이 아닌 다른 곳의 DNA를 사용한다는 걸 보니 이 DNA에 있는 CO1 유전자가 바코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나 보다.

3) 이 유전자는 중간 변이도가 크고, 세대를 거듭해도 중 내 변이도가 작아서 DNA 바코드에 적합하다.

➡ 쉽게 말해서 CO1 유전자라는 부위는 다른 종끼리는 어마어마하게 다르고, 같은 종끼리는 어마어마하게 비슷하다는 거다. 따라서 문단1)에서 명시한 해당 기술의 목적인 '분류학상 계통'을 밝히기에는 아주 유용한 부위가 되며, 그래서 DNA 바코드로 사용한다.

문단 3 PCR 과정

1) 동물계의 한 표본이 나비목 X과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려 한다고 하자. 이를 위해서는 DNA를 추출한 뒤 **중합 효소 연쇄 반응(PCR)**을 통해 DNA의 양을 늘려야 한다.

❶ **맥락 짚기** 가상의 사례로 표본 동정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대목이다. 문단2에서 파악한 대략의 흐름을 의식하면서 읽어 나가자.

➡ 가장 먼저 PCR로 표본 DNA의 양을 늘려야 한다. 표본의 염기 서열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절차인가 보다.

2) PCR 기기에 DNA를 넣고 온도를 높이면 상보적으로 결합되어 DNA를 이루던 두 염기 가닥이 분리된다. 상보적으로 결합된다는 것은 A와 T 간에, 그리고 G와 C 간에만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한쪽 가닥에 A가 있으면 다른 가닥에 T가 있어서 서로 결합된다는 것이다.

➡ PCR 기기의 온도를 높이면 이중 나선 구조로 이루어진 DNA가 열을 받아 두 가닥으로 분리된다.

➡ 다만 본래 두 염기 가닥은 일정한 규칙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한쪽 가닥에 T가 있으면 맞은편 가닥에는 반드시 A가 있고, 한쪽 가닥에 C가 있으면 맞은편 가닥에는 G가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한쪽의 염기 가닥만으로도 다른 쪽의 염기 가닥의 서열을 필연적으로 알 수 있다.

3) 나비목 X과의 CO1 유전자 부위가 'TCGGTACTAG...'라고 알려져 있다고 하자. 표본에서 이 부위가 포함된 가닥[→ 표본의 CO1 유전자 부위를 주형으로 삼아 새로운 가닥을 만들기 위해, ...]

❶ **주목** 우리의 목적은 '표본의 CO1 유전자 부위의 염기 서열 정보'를 구하는 데에 있다. 그래야만 대표 표본의 염기 서열 정보와 비교하여 분류학상 계통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해당 문단의 PCR 과정의 목적 역시 '표본의 CO1 유전자 부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을 거다. 다만 이를 위해 해당 부위를 주형으로 삼아 그에 상보적인 사본을 만드는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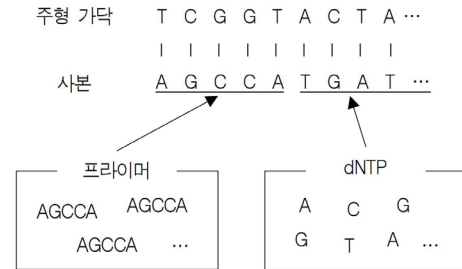
4) ... PCR 기기에 이 부위의 앞부분[→ 'TCGGT'에 상보적으로 결합되는 작은 조각인 **프라이머**, 즉 'AGCCA'들을 다량 넣어 준다. 그리고 A, T, G, C 중 하나씩을 품고 있는 네 종류의 **디옥시뉴클레오사이드 삼인산(dNTP)**들도 다량 투입한다. 프라이머는 주형 가닥에 상보적으로 결합되며 **DNA 중합 효소**가 활성화된다.

➡ '프라이머'는 주형 가닥의 가장 앞부분에 상보적으로 결합한다. 이때 이 '프라이머'는 표본이 나비목 X과에 속하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만 들어진다. '프라이머'로 사용되는, CO1 유전자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서열은 최소한 나비목 X과에 속하는 표본이라면 무엇이든 동일하다. 표본이 나비목 X과라면 그 이후 서열들도 대체로 비슷하고 일부만 다를 것이다.

➡ 또한 'dNTP'는 A, T, G, C 중 하나를 품고 있다는 걸 보니 네 종류의 염기와 비슷한 정도로 이해해 두면 되겠다.

5) 활성화된 효소는 dNTP들을 재료로 삼아 주형 가닥에 대한 상보적 규칙에 따라 프라이머에 뒤이어 dNTP들을 하나씩 연결시키며 새로운 가닥인 사본을 만들고, 사본 생성이 완료되면 사본이 주형 가닥에서 분리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많은 사본을 얻을 수 있다.

➡ 표본의 주형 가닥에 프라이머가 먼저 결합하고 뒤이어 해당 주형 가닥에 상보적 규칙에 따라 dNTP들이 하나씩 결합하게 된다.



➡ 이후 완성된 사본은 분리되고, 다시 주형 가닥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서 앞의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DNA의 양을 늘릴 수 있는 거다.

❶ **맥락 짚기** DNA 바코드 부위의 양이 늘기는 했지만 아직 우리가 목표로 하는 '염기 서열 정보'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한 설명이 후술될 테니 집중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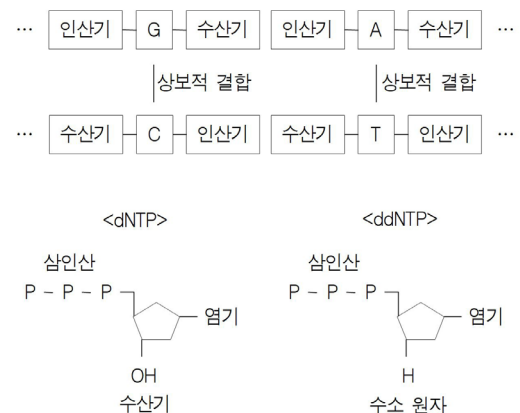
문단 4 시퀀싱 과정

1) 그런데 [이렇게 얻은 사본의] 염기 서열을 직접 읽을 수는 없어서 PCR 과정에서 **시퀀싱**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투입한 dNTP의 개수보다는 적지만 상당량의 **다이드옥시뉴클레오사이드 삼인산(ddNTP)**을 함께 투입하는 방법이다.

➡ 사본을 잔뜩 만들어도 그 '염기 서열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단3에서는 편의를 위해 결합되는 dNTP들을 적어 줬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가닥에서 서열을 이루고 있는 각 염기의 정보를 직접 읽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ddNTP가 필요하다. 'ddNTP'가 그래서 뭐냐면.....

2) dNTP에는 한쪽 말단에 인산기가, 다른 쪽 말단에 수산기가 있고, 가닥의 끝에 있는 dNTP의 수산기에 다른 dNTP의 인산기가 연결되면서 가닥이 길어진다. 이와 달리 ddNTP는 dNTP와 유사하지만 수산기를 수소 원자로 교체하여 그쪽에 다른 것들이 결합되지 못하도록 조작한 것이다.

➡ 'dNTP'와는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다. 수산기 대신 수소 원자가 놓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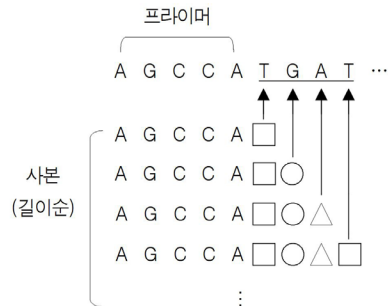
➡ dNTP가 그다음에 놓이는[→ 물론 어떤 dNTP가 놓이는지는 주형 가닥의 상보적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 dNTP와 연결될 수 있는 이유는 이전 dNTP의 '수산기'에 다음 dNTP의 '인산기'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시퀀싱 방법을 적용하면 ddNTP가 우연히 가닥에 연결될 때 그 상태에서 사본 형성이 종결된다. 그 결과 길이가 다른 사본들이 만들어지는데, 적정량의 ddNTP를 투입해야 길이가 다른 사본들이 골고루 생성된다.

➡ 따라서 수산기 대신 '수소 원자'를 갖는 ddNTP가 결합하면 거기에는 더 이상 다른 dNTP, 혹은 ddNTP의 '인산기'가 결합할 수 없게 된다.

4) 전기영동 기술을 사용하여 사본들을 길이순으로 늘어놓으면, 'AGCCAT', 'AGCCATG', 'AGCCATGA' 등의 순서로 사본들이 늘어 있는 상태가 된다. 시퀀싱 방법에서는 염기의 종류에 따라 ddNTP를 각기 다른 색으로 염색해 두고, 이 색을 통해 늘어 있는 사본들의 마지막 염기를 순서대로 읽어 주형 가닥에 결합되는 가닥의 서열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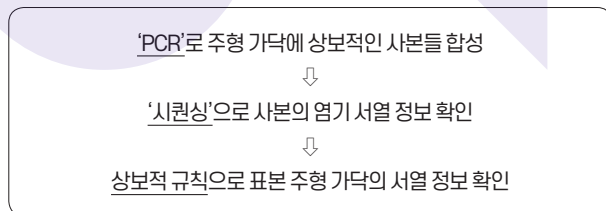
➡ 다음과 같은 상황을 떠올렸다면 훌륭하다. 사본의 염기 서열 정보를 직접 읽을 수는 없지만, ddNTP에만 염색을 해 두었기 때문에, 사본을 길이순으로 정렬하면 그 끝부분의 색을 통해 사본의 염기 서열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 **주목** 물론 이렇게 확인한 사본의 염기 서열 정보는 결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즉 주형 가닥(→ 표본의 DNA 바코드)의 염기 서열 정보가 아니다. 그에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맞은편 가닥의 정보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5) 이렇게 확인한 서열에 상보적 규칙을 적용하면 주형 가닥의 해당 유전자가 지닌 염기 서열을 알 수 있다.

➡ 상보적 규칙을 적용하여 표본의 'DNA 바코드의 염기 서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단 5 시퀀싱 결과 대조

1) 이렇게 알게 된 CO1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바코드 라이브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나비목 X과의 염기 서열과 상당 수준에서 일치한다면, 두 생물은 동종이라 판단된다.

➡ 마무리 단계이다. 두 염기 서열 정보가 충분히 비슷하다면 표본이 나비목 X과 계통에 속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대조 결과의 신뢰도는 바코드 라이브러리에 등록된 대표 표본 정보의 정확성에 의존하므로, 대표 표본 정보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된다.

➡ 당연한 얘기다. 기준으로 쓰이는 '대표 표본 정보'를 믿을 수 없다면 DNA 바코드 기술 역시 믿을 수 없게 된다.

[27~30] 현대소설

「무사와 악사」 홍성원

작품 평가

문장이 복잡하지는 않으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성격과 가치관이 독특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가치관을 이해해야 인물의 말과 행동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굴곡 많은 삶을 살았던 어느 인물의 행적을 통해, 혼란스러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비판적으로 성찰해 내는 작품이다.

[앞부분 줄거리] 십여 년 만에 '나'를 찾아온 친구 기범이 교통사고로 죽자, '나'는 그의 고향을 찾아가다. 그의 지난 행적을 수소문하면서, '나'는 십여 년 전 기범이 친구 오일규의 죽음 뒤 일규를 허풍스런 '무사'로 칭하며 '나'와 벌이던 언쟁을 떠올린다.

➡ '나'와 기범의 친구인 오일규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기범은 일규가 세상에 없으니 자신도 살맛이 없다고 말한다. 기범은 일생 동안 남들의 존경을 받았던 오일규는 '삼류 무사'이고 자신은 '악사'라고 표현한다.

“무사가 칼을 차고 지나가면 그 뒤에 그를 칭송할 악사(樂士)가 필요한 법이다. 같이 허리에서 절그럭거려서 무사는 자기 입으로는 자찬(= 자기 스스로를 칭찬함)의 노래를 읊을 수가 없다. 악사는 바로 이런 때를 대비했다가 무사의 눈짓이 날아올 때 재빨리 악기를 꺼내 황홀한 음악을 탄금(= 거문고나 가야금 따위를 연주함)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사와 악사가 서로를 경멸하면서도 사이좋게 살아가는 우정이다.”

➡ 무사가 악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무대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무사에게는 자신의 행적을 칭송하고 찬양해 줄 악사가 필요하다. 악사가 있어야 무사도 살맛이 난다고 할 수 있겠다. 무사와 악사는 서로의 실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경멸한다. 하지만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불어 사이좋게 살아가게 된다. 이들은 어느 한쪽이 없으면 다른 한쪽도 살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너는 그럼 무사 뒤에서 무슨 즐거움으로 세상을 사는 거냐?”

➡ '나'가 기범에게 한 질문이다.

“즐거움이라고? 우리[→ 악사]에겐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것이 즐거움이다. 나는 살고 있어서, 살아남아서 고마울 뿐이다. 사람이 산다는 것에 너는 그 이상 무슨 뜻이 있다는 거냐?”

➡ 기범의 주장이다. 악사에게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의미 있을 뿐, 삶에 그 이상의 다른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사람이 사는 데 그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면 사람과 동물과 대체 뭐가 다른 거냐? 네놈의 그 추잡한 행각들[→ 기범이 그동안 저질렀던 잘못들이겠다. 수록 지문 외의 부분에서 기범은 죽은 일규를 배신한 적이 있었다.]을 변호하기 위해 너는 너 자신의 사는 의미까지 죽일 셈이냐?”

“네 말은 순서가 틀렸다. 사는 의미를 죽이기 위해 나는 지금까지 열심으로 살아왔다.[→ 거창한 이념이나 대의명분을 피해서 살아왔다는 말이겠다.] 세상은 서푼어치 밥이나 먹여 주고 우리한테 너무 많은 고통들을 강요한다.[→ 뒤에 이어지는 말들을 보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겪게 되는 고통이라고 보면 될 듯하다.] 너도 정신이 올바르게 박혔으면 네 과거를 한

번 돌아봐라. 일제 시대와 대동아 전쟁, 조국의 해방과 남북 분단, 6.25 사변과 동족상잔, 4.19 의거와 5.16 혁명……[→ 거대한 역사적 사건들이다.] 뭘 했냐 너는? 이때 너는 어디 있었냐? 네가 한 일이 대체 뭐냐? 우리 모두가 살아남은 게 고작이었다.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 영감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냥 똥이나 싸고 아침저녁으로 자식들이나 만들었을 뿐이다.[→ 격동과 혼란의 역사 속을 살아오면서도 개인이 한 일은 살아남는 일 정도뿐이라는 냉소적인 말이다.] 36년 동안 일제하에 있으면서 이천만 동포는 무얼 한 거냐? 대체 그들이 무얼 했길래 일제가 물러가자 반민특위(反民特委)를 조직한 거냐? [→ 반민특위는 일제에 협력한 이들을 가려내기 위해 해방 이후 설치한 특별 위원회다. 기범은, 일제하에서는 숨죽여 살았던 사람들이 해방 후 뒤늦게 반민특위라는 이름으로 가장 애국자인 체 나섰던 일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겠다.] 정권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엄청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그것들은 정권이 바뀌었을 때 비사(秘史)나 비록(秘錄)으로 공소 시효 지난 후일담으로나 나올 뿐이다. 무수한 양심이란 것들이 그것들의 진행을 목격했지만 그것들이 진행될 동안은 누구 하나 꺾소리 없었다.[→ 어떤 정권이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 불의한 일을 저질러도, 그 정권이 힘이 있는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다가, 권력이 힘을 잃고 나면 지나간 일들의 진상을 밝힌다며 세상이 소란해지곤 한다. 권력 아래에서 침묵했던 사람들을 향한 비판이겠다.] 그 많은 정의와 양심들은 그때는 모두 어디 틀어박혀 있는 거냐? 이것이 바로 네가 말하는 그 고결하고 존경받을 만한 ‘의의 있는 삶’ [→ 대의명분에 따르는 삶]이라는 거냐? [→ 대의명분이나 역사를 이야기 하지만 정작 불의나 권력 앞에서는 무력한 사람들에게 대한 기범의 비판적 시각이 드러난다.] 우리는 악사다. 재산이라고는 아주 잘 트인 목청 하나밖에 가진 것이 없다. 무사님들이 작업을 하실 때 우리는 뒷전에서 잘한다, 웅소 하고 소리나 쳐 주면 되는 거다. 배고프지 않고 아프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사는 즐거움인 것이다.”

▶ 기범은 역사적 당위나 이념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무사’라고 표현한다. 세상이라는 무대에는 주인공인 무사가 있고, 악사인 자신은 무사를 찬양하며 살아간다고도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지금껏 거대한 역사의 흐름 앞에서 살아남는 게 고작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는 거창한 이념을 내세우는 ‘무사’의 권위 어린 행동이나 그를 찬양하는 ‘악사’의 노래가, 격동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겪은 실제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인식을 함축한 것이겠다.

▶ 기범은 ‘무사’를 비롯한 타인에 대해서뿐 아니라, ‘악사’ 역할을 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냉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때 기범의 냉소는, 삶의 각종 명분과 현실 사이에 어쩔 수 없는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종락 부분 줄거리 이후부터는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혼란한 세계 속에서 진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기범의 생각이 나타난다.

[종락 부분 줄거리] 기범이 살던 마을을 찾은 ‘나’는 그곳에서 지난 십여 년간의 기범의 삶에 대해 듣게 된다.

▶ ‘나’에게 기범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있는 사람은, 기범을 스승처럼 모시며 함께 생활하던 ‘임 씨’라는 인물이다. 기범은 사라졌던 10여 년 동안 이름도 바꾼 채, 산골 마을에서 남을 도우며 도인처럼 살고 있었다.

“그분[→ 기범을 말한다.]은 세상이 어지럽구 더러울 때는 그것을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구 하셨습니다. 세상을 좀 더 썩게 해서 더 이상 그 세상에 썩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

다. 그걸 썩지 않게 고치려구 했다가는 공연히 사람만 상하구 힘만 배루 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엉망이 되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가치를 내세워도 사람들이 그에 그다지 동조해 주지 않을 것이다.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두 썩어라, 철저히 썩어라.’가 그분이 세상을 보는 이상한 눈입니다. 제 나름의 어설픈 추측입니다만 그분은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을 믿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송두리째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범이 말한 초능력이란, 결국 일종의 생존 본능을 말하는 것이겠다.] 세상이 철저히 썩어서 더 썩을 것이 없게 되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언젠가는 스스로 자구책을 쓴다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사람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처를 하게 된다…… 정도의 의미] 당신은 바로 그걸 믿으셨고, 이러한 자기 생각을 부정(不正)의 미학이라는 묘한 말루 부르시기두 했습니다.”

▶ 인간의 삶에 대한 기범의 생각이 다른 인물의 말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명분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바로잡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그 대신 세상이 더 혼탁해지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다.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도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세상을 정화한다는 생각이다. 기범은 인간에게 긍정적인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믿었던 것이겠다.

▶ 역사나 인생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관은 옳음을 추구하는 데 비해, 기범의 생각은 부정적인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가 된다는, 다분히 전도된(= 차례, 위치, 이치, 가치관 따위가 뒤바뀌어 원래와 달리 거꾸로 된) 생각을 보인다. 그래서 기범은 이를 ‘부정의 미학’이라고 표현한 것일 것이다.

나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 뭔가가 미미하게 부딪쳐 오는 진동을 느꼈다.[→ 어떤 깨달음이나 느낌 같은 것이 있었다는 말이다.] 진동의 진상은 확실치 않지만 [→ 말로 명료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그것이 기범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가 아닌가 생각했다. 그의 온갖 기행과 궤변들이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 그제야 언뜻 한 가닥의 질서 위에 어렴풋이 늘어서는 것이었다.[→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었던 기범에게 삶의 원칙 같은 것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다.]

▶ ‘부정의 미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는 기범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은 듯하다.

“헌데 세상에 대해 그런 생각을 지닌 사람이 갑자기 왜 세상을 등지구 이런 산속에 박혀 사는 거요?” [→ ‘나’가 기범이 잠적해서 산골 마을에 살게 된 이유를 묻고 있다.]

“당신께서 아끼시던 친구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버리셨다구 하시더군요. 그때 아마 충격을 받으시구 이러루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랍니까, 그 친구가?”

“이름은 말씀 안 하시구 그분을 언제나 ‘미련한 놈’이라구만 부르셨습니다.”

오일규다. 나는 그제야 오일규의 장례식 후에 기범이 격렬하게 지껄인 저 시끄럽던 요설(妖說, 요사스러운 수작)들이 생각났다. 어쩌면 기범은 그때 이미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 아니 그는 그 얼마 후에 내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것이다.

▶ 오일규의 죽음 이후 기범은 슬퍼하며 ‘나’에게 무사와 악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얼마 후 종적을 감춘 것이다.

“그래 그 친구가 죽은 후로 왜 세상을 등졌단니까?”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구 하시더군요. 아마 친구분을 꽤나 좋아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미련한 놈이 죽어 버렸으니 자기도 앞으로는 미련하게 살밖에 없노라구 하셨습니다. 당신이 미련하다고 말씀하는 건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착한 일을 뜻하시는 것이었습니다.”

➡ 기범은 올바름을 추구했던 오일규를 미련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실제로 기범이 오일규를 어리석게 여겼다가보다는, 비록 미련하고 우직하게 보일지라도 옳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오일규가 죽은 이상, 이제는 자신이 그를 대신하여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겠다.

“그래서 이곳[→ 기범이 서울을 떠나 살던 마을]에 온 후 사람이 갑자기 달라진 거요?”

“전 그분의 과거를 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신 후로는 그분은 거의 남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제가 생명을 구한 것두 순전히 그분의 덕입니다.”

➡ 수록 지문 외의 부분에, 기범이 과거에 병든 임 씨를 구해 주었고 함께 산골로 내려왔다는 내용이 있다.

나는 다시 기범이 지꼈었던 과거의 요설들이 생각난다. 세상을 항상 역(逆)으로만 바라보던 그의 난해성이 또 한 번 나를 혼란 속에 빠뜨린다. 그는 어쩌면 이 세상을 역순(逆順)과 역행(逆行)에 의해 누구보다 열심히 가장 솔직하게 살다 간 것 같다. 그에게 악과 선은 등과 배가 서로 맞붙은 동위(同位) 동질(同質)의 것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는 악과 선 중 아무것도 믿지 않았고 오직 믿은 것이라고는 세상에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 ‘선하게 살아야 한다’거나 ‘대의명분을 위해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라는 등의 일반적인 생각에 대해 기범은 반대했고, 그런 삶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에 참된 삶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기범에게는 선과 악의 구분이 무의미했으며 선악이 별개의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 기범의 가치관은 세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허무주의와는 다르다. ‘선’과 ‘악’을 ‘동위(= 같은 지위나 등급) 동질(= 성질이 같음)’로 여겼다는 것에서 그의 가치관이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악’이 극에 달할 때 오히려 ‘선’이 그 속에서 피어날 수 있으며, ‘악’ 앞에서 미약한 ‘선’의 존재로는 사람들을 돕지 못한다는 것 등, 앞서 제시된 생각을 통해서도 이러한 가치관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고민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참고 자료

작품 전체 줄거리

‘나’는 어려서의 친구인 김기범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알게 된다. 공교롭게도 ‘나’와 안면이 있는 사람의 차에 치인 것이다. ‘나’는 사고를 낸 차주의 부탁 때문에 김기범의 연고지를 찾으러 떠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나’가 동행한 사람에게 김기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김기범은 머리가 좋고 재능이 뛰어났으며 일본에서 대학을 다녔다. 하지만 독특한 성품을 지니고 남다른 삶을 살았다. 일제 말기에 학병으로 끌려가는 출정식에서 조선 학생들과 함께 ‘조선 만세’를 부르기로 했다가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를 벗어난 일도 있었고, 신문 기자 시절에는 친일파를 옹호하는 글을 써서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선거를 돕다가 친구 오일규를 배신한 일도 있었다. 오일규가 세상을 뜨자 그는 ‘무사’가 없으면 ‘악사’도 살맛이 나지 않는다는 취미를 감추었다. ‘나’는 지난 10여 년간 전라도 시골 마을에서 김기범이 이름을 바꾼 채 다른 신분으로 살았음을 알게 된다. 약초를 기르고 남을 도우며 도인처럼 은둔 생활을 하다, 다르게 살아 볼 생각으로 서울로 올라왔다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이해와 감상

1 이 작품에 등장하는 지식인상은, 관념적인 탁상공론만 늘어놓으면서 현실에 대해 어떠한 응대도 하지 못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모습이다. ‘만세’를 부르기로 했으면서도 정작 아무도 만세를 부르지 못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이러한 지식인의 상징적인 단면이다. 작가는 이러한 지식인상에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도, 그것이 시대의 문제임을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범은 만세를 부르지 못한 학생들의 체면을 세워 주기도 하고, 친일파를 옹호하는 글 쓰기를 하기도 하는 것이다. 기범의 눈으로 보기에 친일파들은, 고통과 두려움에 용기를 잃었다는 점에서 만세를 부르지 못한 학생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2 작가는 기범과 일규를 통해 지식인의 실천적 태도를 요구하면서도, 무사와 악사 모두 일종의 연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보듯, 지식인이 몇 마디 말로 세상을 바꿀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여기지는 않는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기범은 ‘세상이 철저히 썩어서 더 썩을 것이 없게 되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언젠가는 스스로 자구책을 쓸 것’이라 믿는데, 이러한 믿음은 몇몇 지식인이 선도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들 스스로의 힘에 의해 세상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작가의 믿음이라 할 수 있겠다.

이 감

(가) 「만분가」 조위

작품 평가

이 작품은 조위가 연산군 무오사화 때 전라도 순천에서 지은 것으로서, 최초의 유배 가사로 알려져 있다. 옥황상제에게 자신의 한스러운 마음을 알리고 싶다는 화자의 말을 통해, 임금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작가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천상백옥경(天上白玉京, 하늘에 있는 궁전) 십이루(十二樓, 신선이 사는 열두 채의 누각) 어디매오

→ 천상백옥경 십이루 어디인가

오색운(五色雲) 김픈 곳에 자청전(紫淸殿, 하늘의 신선이 사는 궁궐)이 가렸으니

→ 오색구름 깊은 곳에 자청전이 가렸으니

천문(天門) 구만리(九萬里)를 꿈이라도 같동 말동

→ 하늘 문 구만리를 꿈이라도 같지 말지

▶ 화자는 천상백옥경, 십이루, 자청전으로 가고 싶지만, 그곳들은 구만리 먼 곳에 있으며 오색운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는다. 천상이 구만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화자가 있는 곳은 지상이겠다. 화자의 좌절감과 막막한 심정이 나타나 있다. '천상백옥경 십이루'나 '자청전', '천문'은 모두 옥황상제가 계시는 천상의 공간이면서, 현실에서는 임금이 계신 곳의 비유이기도 하다.

츠라리 식어지어 억만 번 변화(變化) 하여

→ 차라리 죽어서 억만 번 변화하여[사라도]

남산(南山) 늦은 봄에 두견(杜鵑)의 녀이 되어

▶ 두견새는 입술이 유난히 붉은 빛을 띠는데, 이 때문에 문학 작품에서 흔히 피 울음을 토하는 한(恨)의 표상으로 그려진다. 죽어서라도 '두견의 녀'이 되고 싶다는 것은, 자신의 한스러운 마음을 알리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겠다. 죽어서 이를 수 있는 변화를 억만 번이라도 하겠다는 말은 곧 억만 번이라도 죽겠다는 말이니, 화자의 소망이 그만큼 절실함을 나타내는 것이겠다.

이화(梨花, 배꽃) 가지 위에 밤낮을 못 올거든

→ 배꽃 가지 위에서 밤낮을 올 수 없거든

▶ 화자는 죽어 '두견의 녀'가 되어서 밤낮 울음으로 한을 토로할 수 있기를 바라다가,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을까 하여 다른 변신 대상을 찾으려 한다.

삼청(三淸, 신선이 산다는 세 개의 궁궐) 동리(洞裡)에 저문 하늘 구름 되어

→ 삼청[있는] 마을에 저문 하늘 구름 되어

▶ 화자는 이제 '두견의 녀'가 아니라, 신선들이 사는 마을의 '저문 하늘 구름'이 되고자 한다.

바람에 홀리 느라 자미궁(紫微宮, 옥황상제가 산다는 궁궐)에 느라올라

→ 바람에 홀려 날아 자미궁에 날아올라

옥황(玉皇) 향안(= 향로를 올려놓는 상) 앞의 지척에 나아 앉아

→ 옥황상제 앞에 놓인 상에 가까이 나아가 앉아

흉중(胸中)에 쌓인 말슴 슬카지 스뢰리라

→ 가슴속 쌓인 말슴 실컷 아뢰리라.

▶ '구름'이 되어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면 옥황상제 앞에 나아가 가슴속 비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아뢰 수 있으리라는 거다. 이제야 앞에서 천상백옥경, 십이루, 자청전에 다다를 길을 헤어 보고, 두견의 녀이나 삼청 동리 저문 하늘의

구름이 되고 싶다고 말한 이유가 드러난다. 무슨 이유에선지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쫓겨난 것으로 짐작되는 화자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옥황상제에게 자신의 한스러운 마음을 토로하고 싶다는 거다.

(중략)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식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 이 몸이 죽어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 화자의 몸이 녹아서 없어지거나 물 새듯이 사라져도 옥황상제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녹아지고 식어지어 혼백(魂魄)조차 훗터지고

→ 녹고 죽어서 혼백마저 흩어지고

공산 촉루(空山觸露, 인적 없는 산의 해골)갓치 임자 임시 구르다가

→ 빈산의 해골같이 임자 없이 구르다가

▶ '공산 촉루'는 화자의 비유적 이미지로 쓸쓸하고 서글픈 화자의 처지가 극단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곤륜산(崑崙山, 서왕모가 살며 불새(不死)의 물이 흐른다고 알려져 있는, 중국 전설 속의 산) 제일봉에 만장송(萬丈松, 높이가 만 길이나 되는, 곧 아주 높고 대단한 소나무)[→ 화자의 환생]이 되어 이서

→ 곤륜산 가장 높은 봉우리에 만장송이 되어서

박람비(= 바람과 더불어 몰아치는 비) 쾰린 소리에 님의 귀에 들리거나

→ 바람비 뿌리는 소리로 님의 귀에 들리거나

▶ 화자는 자신이 빈산에 구르는 해골처럼 아무도 알아줄 이 없는 처지가 되더라도, 소나무로 변한 자신의 진심을 그 소나무에 부딪치는 바람비 소리로나 님의 귀에 들려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윤회 만겁(輪廻萬劫) 하여 금강산 학(鶴)[→ 화자의 환생]이 되어

→ 만겁(= 지극히 오랜 시간)에 걸쳐 윤회하여 금강산 학이 되어

일만 이천 봉에 막음껏 소사올라

→ 일만 이천 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 들 벌근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우러

→ 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님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일다

→ 님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의 처분이다.

▶ 오랜 세월 동안 변화를 거듭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옥황상제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것뿐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31~34] 고전시가

(나) 「북천가」 김진형

작품 평가

김진형(1801~1865)은 홍문관 교리(정5품)로 있을 때인 1853년(철종 4년), 이조 판서(정2품) 서기순의 잘못을 따지는 상소를 올렸다가 반대파에게 물려 함경도 명천으로 유배되었다. 이 작품은 그때 지은 유배 가사로, 유배를 가게 된 이유와 유배지까지의 여정, 유배지의 체험과 견문 등을 노래하고 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유배 가사들이 대개 침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것과는 달리, 가볍고 흔쾌하게 유배 길을 떠나는 모습으로 시작해서 유배지에서의 풍류와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유배의 이유가 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는 자부심에서 나온 것이겠다.

토막 1 고을 안의 수많은 선비들과의 교류를 자랑함

서로 인사 다한 후에 본관(本官, 고을의 수령을 이르던 말)이 하는 말이

→ 서로 인사 다한 후에 본관이 하는 말이

➡ 화자가 유배된 고을의 수령인 명천 부사가 화자에게 하는 말이다.

김 교리(校理, 집현전 따위에 속하여 문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5품의 문관 벼슬) 이번 유배(流配) 죄 업시 오는 줄은

→ 김 교리[작가 김진형] 이번 유배 죄 없는데 오는 줄은

북관(北關, 함경도의 다른 이름) 수령 아느 바요 만인(萬人)이 우르스니

→ 북관 수령들이 다 아는 바요, [그래서] 만인이 [김 교리의 사정을 듣고] 울었나니

➡ 화자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유배를 당했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다는 말이다. 다들 알고 있으면 굳이 결백을 주장하며 슬피 울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작가가 전하고 있는 말임을 고려하면, 이는 작가이자 화자인 김진형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조곰도 슬퍼 말고 나와 함께 노스이다

→ 조금도 슬퍼하지 말고 나와 함께 노십시오.

삼현(= 거문고, 가야금, 향비파 세 가지 현악기) 기생(三絃妓生) 다 불러와 오늘부터 놀자구나

→ 삼현을 [연주할] 기생들을 다 불러라, 오늘부터 놀자구나.

➡ 지은 죄도 없이 억울하게 유배를 당했으니,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마음껏 놀자는 것이다. 화자를 위로하기 위해 한 말이다.

무반(武班)의 기상인가 활협(關俠, 남을 대하는 도량이 넓고 시원스러움)도 장하고나

→ 무반의 기상인가, 도량이 넓고 대단하구나.

➡ 화자의 유배지 수령이 문관이 아니라 무관임을 알 수 있다. 화자는 자신을 위로하며 함께 즐기자는 그 수령을 칭찬하고 있다.

그러나 내 일신(一身)이 귀양 온 스람이라

→ 그러나 이내 몸은 귀양 온 사람인데

화려하고 귀한 자리 기생 노래 무어시냐

→ 화려하고 귀한 자리[에 더해] 기생 노래가 무엇이나

➡ 하지만 아무리 수령의 대접이 그렇다고 해도 유배지에서 몸가짐을 조심해야 함은 유배객으로서 마땅한 도리이므로, 기생을 불러 떠들썩하게 노는 것이 화자로서는 꺼려지는 일이었다. 만일 자신을 반대하여 유배를 보낸 조정의 대신들이 이 일을 알게 되면, 더 큰 후환이 닥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극구(= 온갖 말을 다하여) 사양 퇴송(退送, 물리쳐 도로 보냄)하고 혼즈 앓아 소일하니

→ 온갖 말로 사양하여 물리쳐 보내고 혼자 앓아 소일하니

➡ 같이 놀자고 드는 고을 수령을 겨우 떼어 내고 혼자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내(境內, 일정한 지역의 안)의 선비들이 소문 듣고 배움 청해

→ 고을의 선비들이 [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내게] 배움을 청하는데

하느 오고 두셋 오니 육십 인(六十人)이 되는고나

→ 하나 오고 두셋 오니 [모두 합해서] 육십 명이 되었구나.

➡ 유배지에서 화자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화자와 교류하고자 하는 지역 선비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인데, 그 수가 60명에 이를 만큼 많았다는 것이다.

책 끼고 배움 청하며 글 짓고 고쳐 달라

→ 책을 끼고 [와서 내게] 배움을 청하며 [선비들이] 글을 짓고 [내게] 고쳐 달라 요청하네.

➡ 유배지에서 화자의 인기가 매우 높았다는 말인데, 실제로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은근한 자부심의 표현으로 볼 수 있겠다.

북관의 수령 관장(關將, 관문을 지키는 장수) 무관(武官)만 보았다가

→ 북관의 수령과 관장 등 무관만 보았다가

문관(文官)의 소문 듣고 한사코 달려드니

→ 문관이 [왔다는] 소문 듣고 한사코 달려드니

➡ 고을의 수많은 선비들이 화자를 찾아와 교류를 청한 까닭이 드러나 있는데, 말하자면 호소성 때문이었다. 무관만 있는 고을에 글 잘할 것 같은 문관이 왔다 하니, 지역 선비들은 화자와의 만남을 글을 배우기에 아주 좋은 기회로 여겼던 것이다.

내 일을 생각하면 남 가르칠 공부 업서

→ 내 일을 생각하면 남 가르칠 공부 없어

➡ 겸양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자신이 남을 가르칠 만큼의 공부를 해놓은 건 없다는 거다.

아무리 사양하나 모면할 길 전혀 업네

→ 아무리 사양해도 모면할 길 전혀 없네.

➡ 귀양 온 처지에, 아이들도 아니고 다른 선비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번거롭고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일로 생각했을 수 있다. 하지만 애써 사양해도 모면할 수 없었다는 말 또한 은근한 자랑이겠다.

주야로 끼고 이서 세월이 글이로다

→ 밤낮으로 [책을] 끼고서 글로 세월을 보내는도다.

➡ 할 수 없이 그랬다는 건데, 유배객이 제자들을 거느리고 글을 읽으며 세월을 보내다니, 이런 아무리 생각해도 한탄이 아니라 자랑으로 보인다.

(중략)

토막 2 칠보산에서 풍류를 즐김

연적봉 구경하고 회상대 향하다가

→ 연적봉 구경하고 회상대로 향하다가

두 기생 간데업서 찾노라 골몰터니

→ 두 기생 간데없어 [이들을] 찾노라 골몰했네

➡ 이 '두 기생'은, 화자에게 기생을 잔뜩 불러 놀자고 했던 수령이 굳이 함께 산행을 하라며 보내 준 기생들이다. 종각 부분에서 화자는 유배지 수령이 자신의 의향을 묻지 않고 굳이 칠보산 산행에 두 기생을 팔려 보냈기에, 애써 거절할 수가 없어 함께 산행을 하기로 했다는 변명을 늘어놓는다.

어디서 일성 가곡(一聲歌曲) 중천(中天)으로 느러오니

→ 어디서 한 줄기 노랫소리 하늘 한가운데서 내려오니

놀래어 브라보니 회상대 올라안자

→ 놀라서 바라보니 [기생 둘이] 회상대에 올라앉아

일지(一枝) 단풍 썩거 쥐고 녹의홍상(綠衣紅裳, 연두저고리와 다홍치마) 고운 몸이

→ 단풍나무 가지 꺾어 쥐고 연두저고리와 다홍치마 [차려 입은] 고운 몸이

만장암(萬丈岩, 만 길 되는 높은 바위) 구름 우헤 스람을 놀렐시고

→ 만 길 되는 높은 바위, 구름 위에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구나.

▶ 산속에서 두 기생을 잃어버렸다고 여겨서 마음 급하게 찾다가 뜻밖에 높은 바위 위에서 노래 부르는 기생들을 발견한 것이다. 이 상황은 기생들이 손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 준비한, 요즘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이벤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놀랐다고 한 것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사람들을 뜻밖의 장소에서 찾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높은 바위 위의 곱게 차려입은 기생들의 모습이 마치 선녀처럼 아름다워 새삼 감탄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다음에서 화자가 자연스럽게 '신선의 지경'을 떠올리는 것도 이 때문이겠다.

어와 기절(氣絶, 갑자기 몹시 놀람) 허다 이 놀음 기절 허다

→ 어와 놀랍구나, 이 놀음 놀랍구나.

이 몸이 이른 곳이 신선의 지경(地境)이라

→ 이 몸이 이른 곳이 신선의 땅이로다.

전생의 연분(緣分)으로 천조(天朝, 옥황상제가 주재하는 천상의 조정)에 득죄(得罪) 허여

→ 전생의 연분으로 하늘 조정에 죄를 얻어

참고 이 부분이 다른 판본에는 '전생의 연분으로 경구(經句)의 자취(自取) 허여'로 되어 있다. 이는 곧 전생에 천상계 신선이었던 자신이 경전의 구절을 잘못 읽은 것 때문에 지상으로의 유배를 자초했다는 의미이다. 신선이 도가(道家)의 경전인 『황정경』을 한 글자라도 잘못 읽으면 신선 세계에서 인간 세계로 귀양 온다는 이 모티프는 송나라 시인 소동파의 시구에 나오는데, 정철의 『관동별곡(關東別曲)』도 이를 인용하고 있다. 어쨌거나 화자는 이 구절을 인용하여, 짐짓 자신이 전생에 신선이었기에 이런 멋진 곳에 오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상상해 보는 것이다.

바람에 부친 듯이 이 광경 보겠고나

→ 바람에 부친 듯이 이 광경을 보는구나.

▶ 화자는 칠보산을 신선의 세계에 빗대고, 유배 온 자신을 죄를 지어 인간 세계에 내쫓긴 신선에 빗댄으로써, 마치 바람결인 듯 자신이 다시 신선의 세계에 돌아왔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감